

자원봉사 **올림**
2019 Vol. 24





스마트(NFC) 자원봉사 실적관리 시스템

- ▶ 실시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록 가능
- ▶ 자원봉사 기관 검색 및 모집정보 검색

스마트봉사활동 어플 사용방법

1. Play 스토어 포항스마트봉사활동 검색 후 어플 설치
2. 휴대폰 NFC 읽기기능으로 전환



3. 스마트봉사활동 실행



4. 휴대폰 뒷면에 NFC카드 터치



휴대폰을 이곳에 접속해주세요!

5. 봉사활동선택



6. 활동시작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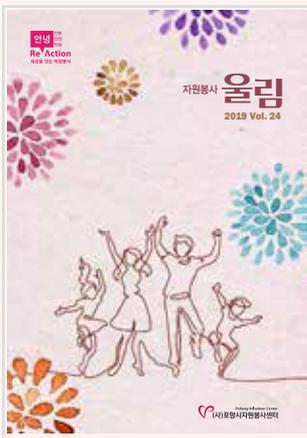


7. 봉사활동 종료시 어플 시작 후 휴대폰 뒷면에 NFC카드 터치 및 종료



Contents

2019. 12 Vol.24



자원봉사 올림(통권 제24호)

발행처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발행인 조규용

발행일 2019년 12월

편집인 김성환 · 센터홍보단

디자인 경북참인쇄기획(284-4815)

- 4 인사말 /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조규용
- 6 자원봉사자 탐방 / 남구보건소 해바라기 조명희 회장
- 8 바르미 봉사단 조은숙 총무
- 10 2018년 봉사왕 김용재
- 12 자원봉사단체 탐방 / 선린대 간호학과 상록희
- 14 실과 바늘
- 16 기업자원봉사단 탐방 / (주)화일산기
- 18 기관 탐방 / 선린동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20 자원봉사 사례수기 / 2019 자원봉사 사례수기 대상
- 22 포항행복마을
- 24 자원봉사거점센터
- 26 읍·면·동 지역자원봉사대 활동
- 28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 33 2019 자원봉사 시민대학
- 34 자원봉사 전문교육
- 36 전문자원봉사단
- 38 가족자원봉사단 활동
- 40 아파트자원봉사단
- 42 POSCO재능봉사단
- 44 안녕 리액션 캠페인&도 우수사업 소개
- 46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소개
- 47 다무포 하안마을 소개
- 48 봉사단체 소개(12개)
- 50 2019년 신규 할인가맹점
- 51 언론에 비친 포항시자원봉사센터



발간사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조 규 용



일상의 자원봉사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 드립니다.
포항시자원봉사센터는 1996.12.16일 설립이후 22년간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해 오다 시민성과 공공성 기반의 자원봉사 가치 확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자원봉사 확산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2019년 1월 민간주도형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최근 자원봉사는 국민의 기본의무이며, 사회의 근본 윤리로서 인간존중의 시민 문화운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센터 초기 2,010명의 자원봉사자 수가 2018년 말 132,600명으로 확대 되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지난 11.15 지진피해 복구 활동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전국 자원봉사 선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한 사단법인 포항시자원봉사센터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만나 외로움과 가난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따사롭게 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여, 우리 포항의 행복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선진시민 문화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센터 임직원들 모두는 "일상의 자원봉사로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포항"이라는 비전아래 자원봉사 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의 플랫폼으로서 자원봉사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상 속에서 꽃피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구보건소 해바라기봉사단 조명희회장을 만나다

2019년 9월 30일 남구보건소 해바라기봉사단 조명희 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26일에는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기계면 과수(사과)농장에 낙과 피해복구 활동 중이었고 당일 오전까지도 송도 송림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번 올림지 취재 건으로 연락을 드렸다 하니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시며 인터뷰를 사양했지만 몇 번의 간곡한 설득 끝에 어렵게 만남이 성사되었다.

처음 만난 조명희 회장은 갈색 웨이브 커트 머리에 해바라기봉사단 티셔츠를 입고 환한 미소로 반갑게 반겨주었다. 도구까지 찾아와줘 고맙다고 하시며 봉사하는 삶이 일상생활에 끼친 선한 영향력에 관해 이야기 해주었다.

봉사의 시작은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회를 하면서부터였고 그 후로 크고 작은 봉사들이 이어져 오면서 먼 소재지에서 하는 봉사, 시에서 주최하는 봉사 등 점점 활동이 늘어나 봉사가 생활화된 것 같다고 한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남구보건소 해바라기봉사단은 35명의 회원이 5인 1조 7개 조로 구성되어 한 달에 두 번씩 독거노인 집을 방문하여 청소, 빨래, 이발, 목욕까지 도와드린다고 한다. 남구 쪽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다 방문하는데 특히 구룡포지역에는 혼자 사는 남자 어르신들이 많아 정말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청소하고 목욕까지 헤드리고 나면 부끄러워하시면서도 눈물을 보이며



감사한다고 한다. 남들이 꺼리는 가장 힘든 봉사인 것 같다고 하니 사명감 없이는 못 한다고 하시며 모두 내 부모라는 마음으로 협심한다고 했다.

포항이 고향인 조명희 회장은 딸 여섯 중 둘째로 태어나 64년 동안 고향을 지키고 있으며 87세이신 친정 어머님도 매일매일 들여다보며 챙긴다고 한다. 독거노인들께 봉사하다 보니 내 부모한테도 더 잘하게 된다고 친정 어머님 지인들이 다들 부러워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 잘 늙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주변도 더 돌아보게 된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작년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 가문의 영광이었다고 한다. 남편과 두 딸은 물론 사위들까지 자랑스러워하여 행복했다고 한다. 지금은 퇴직 후 개인택시를 하는 남편까지도 어려운 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등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 이럴 때 정말 보람되고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 모든 것들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준 해바라기봉사단, 부회장, 총무, 그 외 봉사단원들의 힘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인터뷰 중에도 계속 조명희 회장을 찾는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다음 봉사현장에 가봐야 한다며 “봉사는 어떠한 대가나 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생활화되고 어렵고 힘든 곳에 먼저 달려가 함께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그런 마음이라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조명희가 넘쳐날 것이다.”라는 감동적인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었다.

이 시대의 참된 리더로서 존경받는 포항의 딸이자 엄마이고 아내인 조명희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취재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홍보기자 운영회



나눔과 베품의 실천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산증인

“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근심할 까닭이 없고, 오로지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을 일이다 ” 논어에 나오는 이 글귀를 생활신조로 살아온 이가 바로 조은숙씨가 아닐까 싶다.

60년대 누구나 경험했던 찢어지는 가난한 환경이 오히려 보약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과 베품을 알게 되었고 이를 지금까지 묵묵히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내 자원봉사자가 13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 공무원으로서 시정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휴일에는 취약지 환경정비, 사회복지시설 방문, 농촌일손돕기, 어려운 이웃돕기 등 활발히 자원봉사운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 우수 공무원이기도 하다.

인터뷰 요청을 사뭇 거절한 조은숙(도배전문봉사단 바르미팀 총무)씨의 훈훈한 미담을 지면을 통해 널리 알리고 우리의 귀감을 삼고자 한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여년 자원봉사자로서 걸어온 그 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불우했던 환경을 경험 삼아 성숙한 자원봉사의 나눔과 베품을 또 하나의 숙명처럼 여기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시정 업무 중 뇌종양 소아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된 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앞장서서 2001년 5월 ‘따뜻한세상만들기 포항지부’의 발족을 시작으로 장애인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요양시설을 지원하면서부터 자원봉사 첫걸음마를 떼게 되었다.

매주 거리모금 활동(물품판매) 및 일일 호프 운영, 헌혈증서 모으기 등을 통해 2002년에는 뇌종양 소아암 김ㅇㅇ군 돕기 모금 행사로 2년간 4,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2004년 급성백혈병 아동 모금으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저소득가정에 각 1백만원씩 지원하기도 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기도 하다.

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달 소외된 지역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 생활인들의 건강 돌봄, 시설 청결 활동, 말벗 나들이 지원 등 사랑과 희망의 햇살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여성 정신장애인 생활시설 마리아집과 지적장애인시설 예티쉼터, 노인시설



조은숙님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 가정을 위해 도배전문봉사 바르미팀원들과 함께 도배와 장판 교체를 하고 있는 조은숙씨



나오미의 집을 찾아 지원 활동을 해 온 바 있다.

특히 2002년~2011년까지 매년 4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지역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찾아가는 산타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지원자들과 함께 수공예 초콜릿, 사탕을 만들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에 판매하여 큰 호응을 얻고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학원에서 도배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도배전문봉사 바르미’ 팀(15명)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무료급식소, 장애인시설과 독거노인, 저소득 임대세대를 대상으로 도배 봉사를 무려 161회나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실과바늘’ 봉사팀을 구성하여 벼룩시장을 통한 수익금으로 실을 구입하여 추운 겨울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한땀한땀 정성들여 짠 목도리를 연간 200개 제작하여 기증하는 등 자원봉사 문화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경상북도 자원봉사상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울러 포항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경제, 우리 정서 교육 등 재할에 힘쓰고 있어 다방면으로 자원봉사의 참뜻을 실천하고 있다.

취재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홍보기자 원영만

포항시 동경대학 들어보셨나요?



[우, 2018년 봉사왕 김용재]

봉사왕의 하루는 바쁘다! ‘2018년 봉사왕 김용재’

포항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권오성)는 한 해 동안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봉사왕으로 선정하였다. 홍보단에서는 2018년 봉사왕 중 한 명인 ‘김용재’ 봉사자를 만나 뵙고, 어떻게 봉사왕을 수상하게 되었는지,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하였다.

뱃머리 평생 학습원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학습상점에서 인터뷰 주인공을 만났다. 급하게 온 듯해 여쭙보니 아침에는 ‘양학청소년공부방’에 들러 관리를 하고 온다고 한다. 뱃머리평생학습원이 약속장소라 평생학습과 관련된 봉사를 하는가 했지만, 청소년, 노인, 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내가 사는 마을부터 평생교육! ‘포항시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장

‘김용재’ 회장은 2009년도부터 3~6대에 걸쳐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성실한 회장이라며 사무국장이 귀땀을 한다.

포항시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회는 평생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적인 봉사를 희망하는 일반시민을 지도자로 양성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이론 및 실습을 한다고 한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 기자에게 ‘동경대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라고 질문해서,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동경대인가요?” 라고 반문했더니 김회장이 웃으며 답했다.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 대학의 줄임말입니다.”

“아하.. 정말 센스있는 네이밍입니다!”하고 칭찬을 하니 쑥스러워하며 동경대학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다. ‘동경대학’은 ‘포항시’와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2019년에는 청림일월경로당, 찬내어르신쉼터, 효곡어버이집 등 8개의 동네경로당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치매예방 주산교육, 건강체조, 웃음치료, 핸드마사지, 힐링마술, 노래교실 등



[2019년 포항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정기총회]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배움을 실천하는 장이 되고 있다고 한다.

가장 애착이 가는 곳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

김용재 회장은 평생교육 이외에도 ‘양학 청소년 공부방’, ‘부학 작은 도서관’ 등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을 갖추기 위한 봉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양학동복지회관 3층에 자리잡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포항시 중·고등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다.

말하자면 독서실과 같은 공간인데,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포항시 관내에는 당초 11개의 공부방이 지원받았으나 현재는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4곳만 포항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김용재 회장은 공부할 의지가 가득한 청소년들이 밝은 모습으로 공부하고 있다며 사교육이 메꿀 수 없는 부분을 해소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부터!



[지도자 양성과정 중 김회장의 강의]

김용재 회장은 인터뷰 내내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있는 곳이 거점지역이라 생각하고 내 주변을 밝히는 봉사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앞으로도 포항시의 어르신과 청소년들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김용재 회장은 봉사왕으로 선정된 봉사왕뿐만 아니라 활발히 봉사활동을 해주신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으며, 앞으로도 포항시 관내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포항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취재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홍보기자 임혜진



지역사회 내 소외 계층 아동과 노인분들 위한 지원프로그램 “전지적 1665시점”

Q 상록회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연령이 높은 분들의 모임인줄 알았는데... 다들 20대 시네요. 주로 봉사는 어떤 곳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나요?

박단비 - 시골(회장)

상록회라는 간호동아리 회장을 맡으면서 가장 큰 난제는 봉사 장소 정하기였습니다. 어느 곳으로 봉사를 가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고 여성아이병원, S포항병원, 포항의료원과 시골봉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시골봉사와 S포항병원을 맡았는데 시골에는 독거노인분들이 많기에 이런 봉사활동들이 어르신들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호암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책 읽기와 치매예방 놀이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함께 즐겁게 느껴졌고 매번 감사하다고 말씀해주는 어르신들께 제가 더 큰 감사의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바이탈(혈압)과 BST(혈당)를

측정하면서 간호사로서 책임감과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골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만큼 제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월 2회 활동으로 포항의료원, 여성아이병원, S포항병원, 성모병원으로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부회장님은 어느 곳으로 활동을 가나요?

이현석 - 포항의료원(부회장)

봉사를 해본 경험이 없던 제가 이렇게 동아리의 직책을 맡으며 사람들을 통솔 해보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병원봉사를 가게 되어 많이 긴장했었는데 평소에는 가 볼일이 없던 병동에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작년부터 지역의 경로당까지 활동지를 넓혔다고 들었어요. 병원과는 다르게 어려운 점은 없나요?

박가현 - 시골

시골봉사를 가기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마사지를 해드리거나 경로당 청소 정도만 해드릴 줄 알았는데 간호동아리인 만큼 혈압과 혈당을 재드리는 활동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아직 간호학과 1학년이라 학교에서 혈당 재는 법을 배우지 않아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동아리 선배님들께서 잘 가르쳐주셔서 여러모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춤도 추고 책 읽기, 종이접기 등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며 세대 간의 소통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짝꿍이었던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머니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간호동아리 "상록회"가 아니었다면 언제 또 이런 유익한 경험을 해볼까 싶습니다.

조소영 -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동화책도 읽고 농사일도 도와드리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할머니들도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잘 챙겨 먹고 다니고 이렇게 매번 와서 놀아줘서 고맙다고 하신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몸이 편찮으셔도 언제나 가면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할머니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Q 상록회는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김지민 - 여성아이병원(총무)

수술실과 내시경실 봉사하면서 환자를 간호할 때에는 환자의 안전과 위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비록 의료기기 정리 등 잡다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하면서 물건의 쓰임을 안다는 것이 제일 큰 배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배움을 바탕으로 탄탄한 간호사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연정 - 에스포항병원

간호사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진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동안 환자분들을 수술실 및 회복실로 안내해 드릴 때 환자분 혹은 보호자분이 친절히 안내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또 뿌듯했던 것은 내가 수술실로 안내해드렸던 환자분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로 엄청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취재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홍보기자 김화경





한을 한올에 사랑의 마음을 엮어내는 ‘실과 바늘’ 봉사단

함께 뜨개질해요~

수예재능 봉사단인 ‘실과바늘(회장 박은향)’은 2010년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 수료 후 봉사에 뜻이 있는 회원 19명이 모여 나눔의 기적을 실천하고자 결성한 봉사단체이다. 이정선 총무는 “친구 따라 강남간다”는 옛말처럼 친구의 권유로 봉사단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처음 만나는 회원들이었지만 공통의 관심사 덕분인지 봉사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 그런지 낯설지 않고 편안함을 느꼈다고 한다.

평소 뜨개질을 좋아하여 틈만 나면 실과 바늘을 손에서 놓치지 않는다는 회원들은 째짤이 뜨개질을 하여 만든 것들을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정기모임 때 만나, 각자 정성들여 만든 완성품을 돌려보며 제작의 노하우도 나누고 소통하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

마음을 전해요~

야무진 손끝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정기모임 때 수거하여 포항시자원봉사센터와 의논 후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한부모가정, 차상위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실과바늘 봉사단은 완성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년 여름방학이면 포항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마을학교에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원봉사 체험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포항의료원에서 치매예방 및 치매 진행 지연관리를 위해 진행한 예쁜 치매 씬터 ‘경로당 치매예방교육’, ‘어르신 건강대학’에도 참여하여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존감 및 자기 표현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나눔의 마음으로~

뜨개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자랑을 하는 ‘실과 바늘’ 봉사단은 올 9월에는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한 ‘똑심이 기’ 전달식을 가졌다. 그리고 포항시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포항문화예술 창작지구 ‘꿈틀로’의 거리조성에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예술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창작활동을 펼쳤다. 실과 바늘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봉사이지만 매년 200개의 완성품을 만들어 기부하고 다양한 곳에서 재능기부활동을 하려면 재료비가 만만치가 않아 포항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벼룩시장이나 지역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리마켓에 참여하여 수익금을 만들어 재료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행복한 마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더 많이 가지려는 자가 아니고 더 많이 주는 자이다’ 라는 글을 가슴에 새기고 봉사활동에 임한다는 박은향 회장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평소 관심이 없었던 사회기관 및 단체와 소외계층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회 곳곳에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실과 바늘’ 봉사단 회원들 모두 나눔의 행복을 크게 느껴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뜨개질을 통해 소외된 여러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행복이며 보람이라는 ‘실과 바늘’ 봉사단 덕분에 포항의 사랑의 온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취재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홍보기자 전은주



(주)화일산기 봉사단



주식회사 화일산기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컨베이어벨트 관련과 기계정비 업무를 하는 정비 전문 기업입니다.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가야 한 톨의 쌀을 얻을 수 있다는 농부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화일산기는 최고의 기술력을 이용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정비하고 자원봉사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화일산기는 2004년 11월에 설립되어 190명이 한 가족처럼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포항시로부터 봉사활동 부분 상을 받기도 하였다. (주)화일산기는 직원들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 아들, 딸 등 가족 모두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주)화일산기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단은 각 파트별로 구성되어있다. 회사 홈페이지에 사회공헌 활동 페이지를 통해 각 파트별 봉사활동 내용과

사진을 통해 다른 파트의 봉사활동을 서로 볼 수 있도록 공유하여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깨끗한 자연환경 구현을 목표로 해도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매 마을인 해도동에서 무료 급식 배식 및 급식소 청소, 고아원 및 요양원 설비 개·보수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며, 자매결연 마을에서 마을 일대 환경정화활동을 비롯해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손 돕기와 농기계 수리, 마을회관 및 시설 개·보수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들 모두 회사 업무로 바쁜

외중에도 무료급식 봉사나 장애인 시설 방문 등의 활동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가을 수확 철에는 마을 과수원을 방문하여 사과 따기, 사과밭 부직포 제거, 비닐하우스 수정 작업 등 부족한 농가 일손을 보태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어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활동을 펼쳐 어르신들의 든든한 힘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전달, 연말연시 사랑의 쌀 전달, 난방유 보급, 창문 교체, 도배, 전기 설비 수리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사회 가치 증대에 앞장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노사합동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고마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도동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해도동 주민은 나이 많은 어르신이 많이 계시고 또

오래된 주택이 많고, 겨울철이면 난방유 절약하느라 거의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주)화일산기에서 난방유를 공급해 주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였다.

이제 다시 차가워지는 날씨에도 화일산기 봉사단의 아름다운 봉사가 있어 올겨울도 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취재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홍보기자 최종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선린동산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위치한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선린동산을 찾았다. 선린동산을 가기 위해 언덕을 오르다 보면 법인 산하시설인 선린에육원이 나오고 바로 그 언덕 위에 선린동산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으로는 탁 트인 동해가 한눈에 보이고, 왼쪽으로는 우거진 숲으로 이루어져, 언덕 위의 선린동산은 마치 이름 그대로 작은 동산을 연상케 하였다. 3층 건물인 선린동산은 1층엔 선린지역아동센터와 놀이방 그리고 선린동산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헬스장, 미술 상담치료실, 실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대강당과 이용자들이 즐겁게 노래를 배울 수 있는 노래방이 설치되어 있다. 선린동산의 야외시설은 정원, 휴식공간, 풋살장, 농구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운동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선린동산'의 슬로건 아래 2014년 8월 14일에 설립되었다.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선린동산의 건물 내부를 이곳저곳 소개받으며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장점을 최치언 팀장에게 들을 수가 있었다. 선린동산은 위치상 접근성이 좋아 외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실습생, 근로장학생 등 의뢰가 많이 들어와, 사회성 향상 훈련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

다른 장점으로는 교외 봉사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을 교회하기 위한 사회봉사제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사춘기 학생들이 선린동산 봉사경험을 하고 소감문을 적은 걸 보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학생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이 많았다고 했다. 또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도 제공 해주고 있는 등 선린동산만의 차별화된 장점이 너무나도 많았다.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증진, 선린동산 자치회, 사회적응체험, 교육 재활, 보건·안전교육, 여가 및 특별활동, 전문치료, 한자 수업, 인권교육, 특수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이 진행 중이다.

장애인시설에서의 보람된 점과 힘든 점을 한가지씩만 꼽아보라는 질문에...

매주, 직원회의와 보호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보면 어느새 이용자들의 돌발행동이 줄어들고 규율에 적응해 나갈 때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리고 힘든 점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고 했다. 얼마 전 이용자와 함께 야외활동 중 발을 지나 뒷산을 올라가는데 발 주인이 시설에나 있지 왜 밖에 나와서 여길 지나가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인식이 바뀌려면 더 노력해야겠구나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원장은 우리 사회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같은 인격체로 대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취재 당일도 이용자 어머니 한 분이 방문하여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힘든 마음을 표현하며 평평 울고 갔다고 했다. 그분을 다독여주며 함께 공감하는 역할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어 돌봐주는 부모들은 그래도 너무나 고맙다고 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고충도 얘기하며, 비현실적 제도의 한계로 사회적으로 돌봄이 미치지 않는 장애아동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주간 활동 서비스대상 범위와 비현실적인 제도 설계로 또 한 번 부모들을 좌절시키곤 한다. 포괄적 복지이며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는, 장애인 한 사람의 삶을 보듬어 주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기대해본다.

취재 : 포항시자원봉사센터 홍보기자 김정희



나의 이력서

강영숙

저는 죽장면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는 아주 작은 산골 오지 마을입니다. TV도 온 동네에 한 대 있는 시절, 재미있는 영화를 하거나 드라마를 하면 그 시간에 그 집에서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즐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산골 소녀의 가슴에 뭉클해지고 뜨겨워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영부인에게서 소록도를 찾아 일그러지고 뭉그러진 나환자들의 손을 탐색 잡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 하던 어린 시절에 그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소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까 남을 위해 뭘 할까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던 산골 소녀의 가슴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혼자만의 열사가 되었지요

무엇을 할까 뭘 하면 되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지식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녀의 가슴에 끌어 오르는 감정을 견딜 수가 없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떠나고 직장을 구해 떠난 친구들...

그마저도 하지 못하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몇 명 남지 않은 친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야들야, 우리 동네 꽃을 심자 했더니 몇 명의 사내아이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대요

허나 전 굴하지 않고 설득 설득하여 동네 어귀에 돌무덤을 해체하고 길가에 자투리땅을 파고 풀을 뽑고 코스모스 씨를 뿌렸습니다. 아이들은 팀을 만들어 소녀와 함께 물을 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해 가을 정말 하늘하늘한 코스모스 꽃이 만발한 꽃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길을 다닐 때면 그 꽃을

바라보면서 소녀는 한층 더 성숙해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보았을까요 그 꽃이 아름다운지? 먹을 것도 부족했던 시절 눈뜨면 밖에 나가 일하고 밤이면 피곤해 푹아떨어지던 그 시절, 고사리 같은 어린 소녀들이 일구어 놓은 그 길 그 꽃을 한번 쳐다보거나 했을까요?

소녀는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 사람 대한으로 우리나라 만세 그 구절에 무궁화가 웃고 있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무궁화를 심는거야...

무궁화 나무를 꺾어 짚을 덮고 물을 주며 정성을 다했더니 젓가락 같은 나뭇가지에 파란 새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 소녀는 벅찼어요 나도 할 수 있나도 할 수 있구나 ...그 나무는 자라서 예쁜 무궁화 길을 만들어주었고 그때 농촌지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덕노체 4-H 에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를 받고 이 소녀는 하리라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산골동네를 위함ियो 면을 위함이라 생각했고 이 어린 한 몸 불사르리라 생각이 들었지요.. 무슨 용기였을까요

그 당시 칠곡 동명 농민교육장에서 농기계 경운기 다루는 법을 배웠고 나이 드신 농가를 찾아다니며 안전교육과 기계 다루는 것도 전파했습니다. 어느 작은마을을 찾아가 경운기 안전교육도 어디 안 간 곳이 없을 만큼 우리 농촌을 살리기에 힘써 왔지요.

소녀에게 봄이 찾아 왔어요. 함께 활동하며 꿈을 키우던 친구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내 나이 23살 때 지치고 힘든 시기에 혜성처럼 찾아온 백마탄 왕자를 따라 시집을 갔어요. 우리는 4-H 부부가 되었어요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 마을에서 시내버스

택시가 천지인 연일읍으로 시집을 왔어요. 농사짓는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어른들은 모시며 힘겨운 하루하루가 시작됐어요.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내 꿈은 어디로 가고 흔적조차 없었지요.

문득 돌아보니 내 나이 40대 중반 그 풋사과 같은 곱디고운 얼굴에 주름이 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갔는지 그때 단 한 번의 불씨가 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옆에 살던 지인이 새마을 부녀회에 들어보지 않겠냐는, 나는 죽도 새마을 부녀회의 회원이 되었고 그때부터 낯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가리지 않고 부딪치며 봉사라는 단어를 단단하게 내 가슴으로 새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찮게 지역자원봉사대 대원이 되었네요. 아무도 이끌어주지 않고 아무도 없는 이름만 있는 지역자원봉사대 금방 해체되어 없어져 버릴 연기 같은 봉사대에 내가 서있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 살려보자 이를 악물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집했고 20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고 나는 봉사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 거리정화활동, 불우한 가정돕기, 농촌일손돕기, 홀몸 어르신 돌보기, 경로당 방문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경로당 청소를 3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쉬지 않고 행여나 환경이 혼탁하지나 않을까 냄새가 나지 않을까 냉장고 속 음료가 날짜 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엉망이었습니다.

김치 반찬은 곰팡이가 피었고 말라 비틀 어지고 먹다 남은 생선은 썩은 냄새가 진동 하였고 이물질이 말라붙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행주인지 걸레인지 알 수도 없었고 싱크 대는 묵은 때로 형태를 잃어 갔어요.

주민센터에 도움을 받아 세균이 득실거리는 수세미 행주 모두 교체를 하고 일주일에 1번씩 들러 당부하고 관리하니 관내 7소 경로당 냉장고는 반짝 반짝 빛이 납니다. 이제는 오지

말라 하십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지금은 가끔 들러 안부도 물어보지만, 냉장고도 불쭙 열어봅니다. 이웃과 내가 웃을 수 있을 때 행복은 내 곁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안병국 시의원님께서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이 있다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아 실천하는 사업이 있으니 빨래방 사업을 해보면 어떻냐고 권유를 했어요. 2016년 사업자금을 받아 세탁기 2대, 건조기 1대로 관내 홀몸 어르신들의 이불을 세탁해드리며 매주 화요일마다 4~5명씩 팀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집, 늙고 병든 어르신 외롭고 굶주린 이웃 살피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지역자원봉사대 향기천사란 이름도 달았습니다. 향기천사 언제 어느 곳에서도 향기를 뿜어내자는 뜻으로 2018년 여름에는 도시재생 홍보영상도 찍어서 우리 죽도동을 알려왔습니다. 2019년 1월에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평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뿌듯합니다. 우리 봉사 대원님들의 나이가 평균 60이 넘습니다. 5~6명은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고령의 나이에 남을 위해 이불을 세탁하고 말리고 거리를 다니며 버려진 쓰레기도 줍고 그러다 서로 마주 보며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습니다.

이웃을 지키고 섬기면서 십 년이 지나 또 지나도 내가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을 때까지 주민이 주민을 섬기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죽도동에서....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지만 그대로 희망을 안고 쳐다보면 두려움도 많지만 언제나 도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행복마을 |

“행복마을”은 포항시 관내 마을을 선정하여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오지마을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이 행복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능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주민이 행복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능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포항 **행복마을** 13호

일 자 : 2019. 5. 4(토)

장소 및 대상 :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2리, 81세대 144명

참 여 단 체 : 가위사랑, 경상북도개발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동지회, 드림조경, 부학사랑봉사회, 사랑그리다, 사랑의 밥차, 수방사 포항전우회, 우리건축, 위덕대학교 로타렉트, 자원봉사센터 홍보단, 작은바람회, 포항시 여성친화서포터즈, 포항의료원, 한국폴리텍대학교 포항캠퍼스, 한국가스공사, 한동대학교 해비타트 18개 단체 자원봉사자 168명

주 요 내 용 : 태양광 LED 벽부등 설치(20개), 화재감지기 설치(83개), 화단조성, 마을회관 · 담장 페인팅(200M), 마을회관 업소용 싱크대 설치(2개), 벽체보수작업, 정자 오일스테인 도색(2개), 방충망 교체, 기초적인 의료지원 · 건강검진(55명), 이 · 미용 및 염색(24명), 돌보기 나눔(53명), 중식나눔, 다과지원,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이동세탁서비스, 봉사활동 취재 등



포항 행복마을 14호



일 자 : 2019. 10. 19(토)

장소 및 대상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1리 50세대 89명

참 여 단 체 : 동해면지역자원봉사대, 부학사랑봉사회, 포항대학교 물리치료과, 동지회, 위덕대 로타렉트, 사랑 그리다, 포항동성고등학교, 한동대학교 해비타트, 자원봉사센터 홍보단, 가위사랑,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북동도회, 수도방위사령부 포항전우회, 미소짜장면봉사회, 작은바람회,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형산강환경지킴이 16개 단체 1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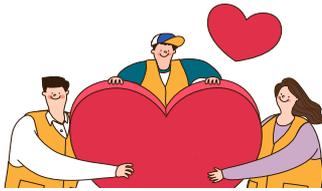
주 요 내 용 :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45개), 담장페인팅·벽화그리기(300M), 방충망 교체, 전기 노후 설비 개선(5가정), 물리치료(20명), 이·미용(26명), 돋보기 나눔(40명), 중식나눔, 안내·다과지원,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봉사활동 취재 등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사랑하고 소중히 지키며, 자원봉사 생활화 실천을 위해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 업무 편의를 돕는 소규모 자원봉사센터(분소).

자원봉사거점센터 상담가란?



자원봉사 관리업무를 위해 "자원봉사 상담가 양성교육 및 직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꾸준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훈련된 리더

자원봉사거점센터 설치된 곳

	읍면동	개소일	회원수	상담가	전문봉사팀
1	오천읍	2016.09.26	190명	29명	10팀
2	우창동	2017.08.16	51명	22명	4팀
3	장량동	2016.07.08	32명	32명	2팀
4	흥해읍	2018.11.13	15명	15명	1팀
5	효곡동	2019년 중	26명	26명	1팀

자원봉사거점센터에서 하는 일?

자원봉사 홍보 및 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정보와 홍보활동을 전개 하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지역의 기관과 연계 하는 활동을 합니다.

신규자원봉사자 접수 및 상담 · 연계

자원봉사 활동 희망자가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자원봉사자와 수요처 (시설 및 기관)의 원하는 바를 상호 조율하여 적합한 활동기관으로 연계합니다.

자원봉사자 활동관리 및 정보제공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실적을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실적을 관리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및 상해보험 관련 교육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에 대한 관심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를 발굴 하고, 구체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 하여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돕는다.



■ 활동사진



거점센터 운영



거점센터 임원회의



상담가 역량강화교육



행정기관-행사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우리마을 깨끗한 거리만들기



거점별 재능기부활동(손뜨개, 양말목공예, 머리핀만들기)

음 · 면 · 동 지역자원 봉사대



남구 지역자원봉사대



구룡포읍 지역자원봉사대

매월 격일제로 첫째, 셋째주 지역 내 요양원에서 압박, 마사지 봉사활동 및 웃음치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일읍 지역자원봉사대

매주 화요일 어르신에게 밑반찬을 전달하며 매일 2인 1조로 이루어 3교대로 연일복지회관 체력단련실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오천읍 지역자원봉사대

매일 야간 순찰 및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합동 순찰을 실시하며 매월 2회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및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송면 지역자원봉사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대송다목적복지회관에서 안내와 헬스장 청소를 실시하는 등 총관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월 격주 수요일에 지역 내 독거 어르신 가정에 반찬을 만들어 배달한다.



동해면 지역자원봉사대

매주 금요일 독거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며 분기별로 환경정화 활동과 집 수리 및 독거 가정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상대동 지역자원봉사대

관내 경로당에서 연 3~5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매월 2회 불우이웃, 독거 노인을 위해 요리를 하여 도시락 배달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도동 지역자원봉사대

지역 내 경로당, 장애인 복지관, 나눔의 집에서 짜장면 나눔 봉사과 청소년 정화 활동 및 포항시 행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철동 지역자원봉사대

매월 넷째주 화요일 나전복지마을과 둘째주 토요일 온정마을에서 짜장면 나눔 봉사를 진행하며 분기별로 보육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송도동 지역자원봉사대

매주 월요일 송림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식당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